

익산시, 소아 응급진료 확대

원광대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진료 협약 체결... 4월부터 자정까지 진료 가능

익산시가 소아과 야간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익산시는 25일 원광대학교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오는 4월부터 휴일 없이 매일 자정까지 소아응급진료를 확대 실시하게 된다. 최근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 의료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어려워져 응급 상황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소아 응급실 뱅뱅이' 사례도 발생



생하는 실정이다.

익산의 경우 그동안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진료를 해왔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상시 진료가 어려웠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문제 해결에 나선 시는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아응급진료 사각지대 해소 전략의 핵심이 의료진 확충에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야간·휴일에도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교대로 상주해 자정까지 신속·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 꿈나무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시의 결단이자 자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공조회)에서는 드림스타트 2024년 예비 중등 입학이동에게 책가방(8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희망을 갖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군산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드림스타트 아동에 책가방 후원

군산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공조회)에서는 드림스타트 2024년 예비 중등 입학이동에게 책가방(8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25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 신화ENG 송정훈 대표, (주)신영테크 유효석 대표, (주)백산 HD 김영민 대표, (주)신명ENG 박동석 대표, (주)서해테크 이영섭 대표, (주)강민 문대길 대표, (주)보원 강보상 대표, (주)현대포스 문현식 대표는 드림스타트 대상 중 예비 중등 입학 예정 아동에게 책가방을 지원하여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아동에게는 건강하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함께 하였다.

군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표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새학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정책과 이진실 과장은 “책가방 후원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입학 아동들에게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을 주었다”라며, 군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9개 업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묵은 때 벗기고 상쾌하게’ ... 익산시, 명절맞이 대청소 돌입

설 명절 앞두고 내달 7일까지 읍면동별 국토대청결 나서

익산시가 명절 손님맞이 대청소에 나섰다.

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한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시민들이 기분 좋게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주요 이·동장협의회와 부녀회, 주민 자치위원회 등 각 읍면동별 주민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공원 등 청소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풀베기나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실제 25일 왕궁면과 인화동, 마동, 영동2동, 어양동, 삼성동에서 국토대

청결 운동이 일제히 추진됐다.

삼성동 동장협의회와 동 직원 등 70여 명이 상가 밀집 구역과 공영주차장,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가지를 청소했다. 이들은 방치된 무단투기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주택가나 공원에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활발한 상권으로 이름난 영동동은 동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동상권상인회 등 5개 단체와 동 직원이 대대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아들은 명절내내 많은 손님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상점가 ‘백제단길’과 청소년의 거리를 중심으로 환경을 정비했다.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고래등 오거리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적치물을 철거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구직난 해소... 위기 시민 생계안정 적극 나서

익산시가 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반기 ‘다이어وم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79명을 모집한다.

다이어وم 일자리사업은 153명(환경정비 123명, 가정어린이집 취사인력 30명)을 선발한다. 하루 4시간 산업단지, 체육시설, 공원, 녹지, 읍·면·동,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일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8명을 선발하며 하루 5시간 다문화 지원사업,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익산시민이다. 재산 소득 기타 자격정보 등의 심사를 거쳐 채용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취사 인력 참여 희망자는 청년시정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기업일자리과(063-859-5237)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다이어وم 일자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

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상임위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조례 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산업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에너지 부문별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여 군산을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등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